

문화도시 수원

제 8 호

원도심 수원기니 류마실

NEW LIFE! NEW STYLE!
문화도시 수원의
원도심 라이프!

좌담

수원화성 원도심의 지역가치
상생의 생태가치를 공유하다

머글수록

원도심 流마실 즐기+
로컬브랜드

전문가 칼럼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수원


나의도시수원

수원형 마켓이
나아가야 할 방향



수원화성 원도심의 지역가치 상생의 생태가치를 공유하다

한국 근현대가 가진 압축성장의 과정은 쇠퇴하는 원도심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의 양극화로 이어져 수도권 도시의 풍경을 비슷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제3차 법정문화도시가 된 120만 대도시 수원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지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존재는 원도심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도시의 울타리가 되어 왔기에 조금은 다른 도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축제인 '생태교통수원 2013'을 개최했던 흐름은 이제 지역가치와 생태가치를 엮은 새로운 변화의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문화도시 수원>은 수원화성 원도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행정,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예술가 시민의 시선을 통해 되돌아봤습니다.

 **참석자** 김현광(수원문화재단 대표)
최정한(수원流마실 MP)
이윤숙(예술공간 봄 대표)

수원은 지난해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인구 120만의 특례시입니다. 그만큼 수원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남다른데요. 다른 중소도시와는 다른 대도시 수원의 문화도시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광 _____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광입니다. 우리 수원은 원도심권과 신도시권의 구분이 명확한 도시인데요. 5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된 수원은 각각의 권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도심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도시권으로 문화를 확장하는 수원 맞춤형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한 _____ 문화기획과 도시재생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최정한입니다. 수원은 광역시급 기초자치체이기 때문에 문화 관련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수원에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수원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숙 _____ 저는 20년간 행궁동을 예술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예술가 주민, 이윤숙입니다. 우리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도시 수원의 미래에 거는 기대도 매우 크고요. 문화도시 조성 방향을 처음부터 잘 정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가치를 충분히



99
구도심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도시권으로
문화를 확장하는 수원 맞춤형 문화도시 조성

최정한 수원은 하나의 도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화도시를 여러 권역으로 나눠 접근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수원화성 권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지역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구축을 통한 생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입된 신도시 주민들과도 수원 문화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공유하고, 이를 모든 수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하는 과정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윤숙 최근 행궁동 주민 인적자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소신을 지닌 인구가 많이 유입됐죠. 자기 분야에 굉장한 역량을 지닌 지금의 행궁동 주민들은 원도심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제공할 잠재적인 지역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가치가 어우러진다면 행궁동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 될 겁니다. 특히 행궁동 주민들의 역량과 행정이 서로 보완해줄 수 있다면,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잠재적 주민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죠.

김현광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전통적 가치는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특성화된 지역가치입니다. 차별화된 수원만의 지역가치는 원도심 한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신도시와 연결되어 수원이라는 도시 전체가 문화로 소통하게 되는 것. 그렇게 문화 생태가치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균형적이고 또 형평성 있게 수원 전체가 문화적인 생산과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행궁동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도 돌보이는데요. 하지만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곳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윤숙 행궁동 주민들은 '행리단길'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은 '행리단길'이라는 말이 행궁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는데 말이지요. 성장가능성의 가치와 원동력은 지역주민, 즉 사람입니다. 다행히 행궁동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생태교통을 만들기 위한 소통을 이어왔어요. 실질적으로 행궁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시나브로 만들어온 셈이지요. 내년이면 생태교통 10년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확대되기 전에 행궁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현광 2013년 도시재생을 시작한 이후 행궁동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시발점이 된 좋은 변화도 있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상업적 과열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만큼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해 원도심 주변으로의 '분산'에 집중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문제, 소음 등 원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겠죠. 문화도시 수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은 행궁동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정한 행리단길과 같은 전국 '리단길'의 성장 패턴은 비슷합니다. 지역 일대가 상업화되는 경향을 동반하게 되죠. 물론 행리단길이 행궁동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등 행궁동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성장가능성에 제동을 걸 겁니다. 따라서 행궁동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여행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보행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교통체계의 재구성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를 위해선 공공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고 싶은 행궁동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문화 및 의식공유도 동반되면 좋을 것 같아요.



99
행궁동 주민들은 원도심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제공할 잠재적인 지역가치

수원화성 원도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 '수원 흐름마실' 행사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문화도시 수원의 원도심 라이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와 닿는데요.

최정한 '수원 흐름마실'은 문화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수원의 원도심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리단길은 MZ세대부터 외국인까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업종들이 증가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중입니다. 이들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 문제, 소음 등 삶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주민들과 문화도시 행궁동의 공존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기획됐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수원라이프, 지역공간과 문화를 연계한 공감과 삶의 가치를 만들어보는 '동네문화 즐기기' 콘셉트인 이번 행사는 문화지구 타당성 검토를 위한 R&D사업의 일환입니다. 때문에 수원화성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의 삶과 문화생태계 형성은 물론 지역 생활권역의 양극화, 세대단절 등 원도심의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9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수원라이프,
지역공간과 문화를 연계한 공감과 삶의 가치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가 설정한 방향은 올바른 문화도시 구축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가진 소중한 문화를 미래의 가치로 유지하는 일, 그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신도심의 발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상생 발전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수원 신도시의 원조격'이자 '원도심의 자부심' 인데요. 수원화성 원도심이 가지는 '지역가치'와 '생태가치'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도심 流마실 즐기기

+ 로컬브랜드

머물고 싶은 공간과 시간, 수원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지는 생생플랫폼 수원流마실의 물결이 일렁인다. 문화도시 수원의 원도심 라이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3일 '문화포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옥을 무대로 펼쳐지는 재즈밴드 공연 '수원 그리고 밤페스타', 밤 문화가 있는 수원 원도심을 만들기 위한 라이브 디제잉 공연 '수원 그리고 밤페스타 유랑DJ쇼', 마켓·체험·로컬도크·투어·전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수원 그리고 그린 마실', 각종 이벤트까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와 수원 지역 셀럽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수원화성 원도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수원의 로컬 브랜드

1. 호작도 _ 행궁동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2. 풀꽃 _ 꽃을 판매하고 원데이 클래스와 전시도 운영하는 공간
3. 페일블루닷 _ 일상과 여행의 순간을 향으로 기록하는 브랜드
4. 디드 _ 신발과 스트리트 패션을 주로 판매하는 로컬 편집숍
5. 탭 _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모여 있는 선물 편집숍
6. 아트인카트 _ 판화 작업을 기반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아트숍
7. PQR 크리에이터스 레이블 _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브랜딩, 프로젝트 및 협업 운영
8. 공존공간 _ 지역에서 공간과 콘텐츠를 연구, 기획, 운영하는 로컬 기업
9. 노스목위닷파 _ 수원 로컬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로스팅과 베이커리 운영
10. 점점우드워크 _ 목공 공방 중심의 주문 가구 제작

글 — 성낙경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성북에서 작은 모임 '모모모'와 공탁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 기획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마을기업 '키득키득'의 대표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수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일상의 작은 틈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스스로의 키워드를 찾고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일,

그 시작과 과정의 무게중심에는

단연 사람에 방점이 찍혀있다.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2012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이하 마술소)'사업은 지역의 공간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서울시가 마을성·공공성·자율성·지속성을 강조했던 마을 공동체사업과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다. 각 공간은 주체에 따라 다른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마술 같은 일상, 마술소라는 이름으로 포럼, 공동 로고와 간판, 공동 홍보물을 만들어가며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애초에 마술소는 초기 2년 지원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5년 지원사업으로 연장했고, 지원 종료 후인 지금까지도 지속 운영되고 있다. 보통 정책사업의 수명이 10년을 넘기기가 힘든 점을 고려하면 마술소는 사실상 '지속가능한' 사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술소 사업이 지역 문화, 공동체 문화로 성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처음 정책을 지원했던 행정의 노력, 지원받은 민간 팀들의 주제성 그리고 모니터링 연구를 맡았던 전문가 그룹의 애정이 모인 '협치 네트워크'의 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지난 8월 마술소 지원정책의 종료를 앞두고 개최된 좌담회의 행보는 그래서 돋보인다.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고민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 변화를 위한 고민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북구, 공유성북원탁회의

같은 시기인 2012년 성북에 거주하는 예술가들 중심으로 '그냥 모임'을 시작했다. 성북은 종로 해화동의 옆 동네다. 대학도 7개가 있어서 연극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동네에 사는 예술가들이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진짜 그냥 만남을 가졌다. 누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자기소개와 인사를 2시간 하는 모임으로 매일 만났다. 운영위원장은 스스로 추천하는 '자전'과 사다리타기 방식의 '신탁'으로 뽑았고, 운영위원회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했다.

3년을 만나고 나니 작은 모임과 재미있는 일들이 생겨났다. 구청에서 운영하던 누리마실 축제를 공탁의 사람들이 축제협동조합을 만들어 진행했고, 미아리고개 고가 밑을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성북정보도서관 지하를 주민들과 함께 천장산 우하극장으로 만들었으며, 동마다 작은 모임을 운영하는 11개의 예술마을 만들기 모임을 진행했다. 소위 공탁을 설명할 때 신탁이 지향하는 문화 민주주의, 2시간 인사하는 누구나 환대와 느슨한 연대, 예술가임대주택을 만든 거버넌스를 얘기한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는 중이다. 공탁은 성북에서 함께 살고 일하고 노는 삶을 꿈꾸며 매일매일 실험 중이다.

수원시, 도시문화커뮤니티 아파트학교

필자는 2019년 수원을 도시문화커뮤니티 '아파트학교'로 만났다. 아파트가 60%인 수원에 맞는 기획이었다. 개인의 삶 중심으로 이뤄지는 아파트에서 관계 만들기를 시작하는 사업이었다. 아파트의 공유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제안을 하면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기획을 제안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을 만나게 하는 기획의도가 녹아 있었다.

같은 건물, 어쩌면 매일 같은 단지 안을 걷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속해서 만나고 무엇인가를 함께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춤, 공예, 서예, 운동 등 다양한 내용이 제안됐다. 사업 시작 전에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워크숍과 연말에 마무리 공유회까지 진행했다. 이후 사업을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가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파트 교류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지역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 등장했다. 일상의 작은 틈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생겼다.

올해 도시문화커뮤니티 아파트학교는 참여자들과 7회의 기획자 과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자의 욕구와 거주 아파트를 살펴보는 리서치를 거쳐 기획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 과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뤄졌다. 아파트학교의 관계를 만드는 활동이기도 했다. 4년간의 작은 틈들이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사람 등 이제 도시문화커뮤니티 아파트학교는 함께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찾아 실험하고 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고 각자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이 다시 우리의 일상에 작은 틈을 만들고 지역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것이다.

지역문화, 공동체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모이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려면 거점공간, 지원, 가치공유, 각자의 욕구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잘 조성되어도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해왔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일에 고민하는 것 같다. 지금 수원의 도시문화커뮤니티 아파트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시작과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그 시작과 과정에서 수원사람들의 모습이 담기길 바란다.



수원형 '마켓'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살고 일하고 공부하며 활동하는 수원의 곳곳은 누군가의 특별한 얘기를 담고 있다.

'나의도시수원'이 '나도수원'으로 특별해지는 그곳. 문화도시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원형 직거래문화장터 '수문장'이 이번 호의 주인공이다.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김민정 대표가 전하는 '수문장'의 얘기가 그래서 흥미롭다.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요!'

육아를 핑계로 아이들을 데리고 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문화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시, 축제와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 일상을 사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여유를 주는지 알게 된 셈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상을 문화로 놀다'라는 이름으로 마켓을 개최하게 됐다. 그 이름은 '마켓여유다. 이 마켓에서 업사이클 놀이를 하고 공연하며 우리들의 얘기가 담긴 전시를 하기 시작했다.

문화도시 수원이 시작되면서 로컬브랜드의 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얘기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우리 동네에도 이제 공공공간에 문화장터가 생기겠구나. 콘텐츠가 로컬브랜드라고? 그것도 참 새롭네!' 하는 희망도 가졌다. 행궁동 광장에서 매년 수원의 브랜드들이 가득한 정기마켓이 열리고 그곳을 찾아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을 꿈꿨었기 때문이다.

'수문장'이 극복한 난관들

2021년 처음 수문장은 난관이 많았다. 날씨가 더운 6월 말과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웠던 10월 말. 두 번의 마켓은 정말 쉽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로컬브랜드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수문장'의 정체성까지. 그래서 문화도시 수원 수문장의 담당자와 고민하고 토론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로컬브랜드 장터는 무엇일까부터 수원형 로컬브랜드에는 누가 모이는가까지.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브랜드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장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브랜드씩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의 정체성이 꼭 관광이거나 행궁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랬다.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보다 더 우리다운 것, 브랜드의 얘기를 잘 담은 것이 바로 수원로컬브랜드가 아닐까.

수문장을 통해 우리는 수원의 개구리 '수원이'를 만날 수 있었고, 탐조책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숍이 세 군데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후 독립책방과 교류하기도, 약속터에 관심 있는 청년브랜드도 만나게 됐다. 네트워크는 힘이 다. 우리에게 다음을 약속할 수 있게 했으니까.

한 해에 두 번 수문장이 열린다. 그 장터에서 우리는 매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번보다 조금 더 나은 마켓, 지난번 마켓보다 한 팀 더 함께 참여하는 로컬브랜드. 그거면 우리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일까. 2022년 6월 수문장에서는 30팀의 로컬브랜드가 모였다. 이제 참여자들은 자신을 수원의 로컬브랜드라고 느끼며 스스로의 색깔을 찾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일상을 문화로 노는 '마켓' 만들고파

공공의 마켓은 풍성한 공연과 시혜적인 행사를 가득 담아 볼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행사를 통해 풍요로운 시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연속성 없는 공공의 마켓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 이미지를 벗을 수 없다. 사실마켓은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판매자들이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기 일쑤다. 당연히 판매 위주의 자본주의 성향을 맨살로 드러낸다. 시설공간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목 좋은 곳에서 운영하려면 임대료가 높고, 참가비도 비싸진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정기적인 마켓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공공의 마켓 안에서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며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시민이자 브랜드의 주체인 참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장이 될 것이라 확신이 든다.

수문장은 역동적인 당사자성을 가진 시민주체가 만들어가는 마켓이 되고 싶다. 그래서 공공공간에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바로 눈앞 우리 동네에서 일상을 문화로 노는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는 것은 참 좋으니까.

모범답안은 우리가 사는 수원에 있다

수원화성, 광고컨벤션센터, 수원역에서 모두 마켓을 개최해봤다. 먼저 수원화성행궁은 시립미술관 옆의 풀밭이 넓고 예쁜 곳이다. 소나무 밑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 공원에서 로컬브랜드 정기마켓이 열린다면 행궁동의 굽직한 메시지를 담은 마켓이 될 것 같다. 사건이지만 그곳에서 한복과 갓 제기치기, 가상현실 VR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궁동 청년브랜드들도 함께하는 마켓이 열린다면 청장년과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허가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겠지만 말이다.

광고컨벤션센터 마켓은 어떨을까. 깔끔하고 세련된 컨벤션센터는 평당 사이즈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곳이다. 신기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고의 인프라를 잘 담은 이곳은 매출을 내기 좋을뿐더러 가족 단위 방문자들도 많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많아 홍보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수원역은 매우 분주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많지만 방문객이나 객단가가 낮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찾는 물품도 한정적이고. 하지만 정말 좋은 시장이고 수원이라는 상징성을 품은 랜드마크임에는 틀림없다. 때문에 필자에게 로컬브랜드 상설매장을 내라고 한다면 수원역으로 결정이 기울 것 같다. 기차와 전철이 겹쳐 있어서 매장이 외진 곳이 아닌, 이동 동선 안에만 들어온다면 로컬브랜드를 알리는데 참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든다. 수원형 '마켓'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우리가 사는 수원역에서 찾고, 아이템을 발굴해 시민을 위한 곳에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보다 더 우리다운 것,
브랜드의 얘기를 잘 담은 것이
수원로컬브랜드가 아닐까.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 도시 주간

10.15 (토) - 10.23 (일)

복합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모든 것은
노래한다
EVERYTHING SINGS

111CM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문화체육관광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00구 00동), 휴대폰 번호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